

“AI로 코어 사업 혁신 추진… 시장 선점·기술 내재화도”

SKT 제39기 정기 주주총회

유영상 “빅테크 독식에 적극 대응”
기존 서비스 Core Biz. 경쟁력 ↑
B tv, OTT 모은 통합 포털로 진화
에이닷 제휴 캐릭터 연계 확대

오혜연 AI 전문가 사외이사 선임
경영진 주식매수선택권 안건 승인

SK텔레콤이 AI(인공지능)컴퍼니로의 진화에 속도를 낸다. 전(全) 사업 영역에 AI를 접목하고 3대 혁신 전략을 통해 올해부터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8일 을지로 사옥 T타워에서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AI를 바탕으로 실제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유 대표는 “최근 챗GPT를 필두로 AI 순풍이 강하게 불면서 어떤 산업이든 AI를 필수로 접목해야 하는 데 모두 동의하는 세상이 됐다”며 “특히 초거대 생



유영상 SKT 사장이 28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올해 AI 컴퍼니로 도약을 선언하고 있다. /SKT

성형 AI모델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참전하면서 빅테크 독식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게 위해 SK텔레콤은 적극적으로 AI 시대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유 대표는 “올해는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코어(핵심) 사업을 AI로 혁신시키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AI서비스를 통한 고객 경험 혁신, 오픈AI 등 글로벌 우수 회사들과의 제

후하는 한편, 자체 기술 개발을 병행해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 내재화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SKT는 이를 위해 AI 기술을 통해 유무선통신과 미디어, 구독 사업 등 기존 핵심 서비스인 Core Biz.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SKT는 고객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과정에 AI를 적용해 소개 인화 기반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편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미디어는 B tv를 다양한 OTT를 한 데 모은 통합 포털로 진화시키고 콘텐츠와 커머스 등에 AI를 접목할 예정이다.

에이닷을 필두로 한 AI 서비스로 고객과 기술의 거리를 좁히며 고객과의 관계도 혁신한다.

에이닷은 올해 기억과 이미지 기반의 대화 기능을 강화하고 제휴 캐릭터와 연계 콘텐츠 확대를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해 이용자 기반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유 대표는 최근 새롭게 선보인 5G 중

간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요금제 다양화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요금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규 요금제 출시가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SKT는 이날 주총에서 ▲2022년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2022년 연결 재무제표는 전년 대비 각각 3.3%, 16.2% 성장한 연간 매출 17조3050억원, 영업이익 1조 6121억원이다. 주당 배당금은 연간 332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분할 전인 2020년 대비 66% 상향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오혜연 카이스트 교수를 신규 선임했다. 오 교수는 자연어 처리 기반 AI 전문가로 평가된다.

SKT는 경영진의 책임경영 강화 및 중장기 관점에서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진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카카오, 코GPT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AI 버티컬 서비스에 활용

카카오톡 커뮤니케이션 질적 성장
SM 인수로 IT·IP 결합 시너지 계획

카카오가 상반기 중 한국형 챗GPT인 ‘코(Ko)GPT’ 업그레이드 버전과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버티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홍은택 대표(사진)는 28일 제주 카카오투에서 열린 주주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코GPT는 현재 3.0 단계로 상반기 안에 출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코GPT를 3.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카카오브레인이 보유한 코GPT를 활용하면 날카로운 버티컬 AI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용 경



쟁력에도 집중해 AI 버티컬 서비스를 연내 빠르게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올해 카카오의 가장 핵심적인 미션은 커뮤니케이션을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며 “채팅 탭으로 묶여 있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더 세분화해 대화 대상과 관계에 맞춰진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챗GPT에서 가장 중요한 인터페이스는 채팅 인터페이스”라며 “카카오가 유저와 접점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유리하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상반기 내에 오픈채팅 채팅탭을 별도로 분리해 탭으로 신설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재미를 담을 수 있는 채팅방부터 기업이 대규모로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는 오픈채팅까지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SM 인수에 대해 홍 대표는 “SM엔터가 보유한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제작 시스템과 카카오와 카카오펀터tainment가 보유한 IT 기술과 IP 밸류체인의 비즈니스 역량을 토대로, 음악 IP의 확장을 넘어 IT와 IP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속하게 인수를 마무리한 이후 카카오, 카카오펀터, SM엔터 간 사업 협력을 구체화해 투자자 분들께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BMW코리아 뉴 XM 국내 출시

뉴 XM은 1978년 M1 이후 처음으로 선보인 M 전용 모델이다. SAV로 활용성도 극대화한데다가, 하이 퍼포먼스 라인업 처음으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적용해 친환경성까지 더했다. 파워트레인은 M 트윈파워 터보 기술을 적용한 V8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를 더했다. 배터리 용량이 29.5kWh로 62km를 주행 가능하다. 완속으로 4시간여면 가득 충전할 수 있다. 복합 연비는 10km/L다. 외관은 BMW 키드니 그릴에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 등 날렵한 디자인으로 고성능을 부각한다. 최대 23인치 휠을 장착할 수 있다. M1 검은색 스트립을 연상시키는 금색 액센트 밴드도 포인트다. 실내는 M 전용 라운지를 재현했다. /BMW코리아

“안정이나 변화냐” 게임사 주총 돌입… 대표이사 재선임 주목

넥슨게임즈·크래프톤 등 재선임
대부분 이사보수 한도 동결

게임업계 주요 게임사들의 정기주주총회가 일제히 시작된다. 이번 주총은 대표이사들의 재선임이 주목된 가운데 게임사들이 ‘안정’과 ‘변화’ 중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넥슨을 시작으로 엔씨소프트·넷마블·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드브시스터즈 등 주요게임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다. 이번 정기총회는 최대 관심사는 대표이사 재선임이다.

지난 24일 주주총회를 실시한 넥슨게임즈의 경우 박용현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통과됐다.

크래프톤은 이날 주주총회를 열어 김

창한 대표와 장병규 사내 이사회 의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재선임 안건 동의율은 김창한 대표는 98.5%, 장병규 의장은 97.07%로 전례했다.

같은날 NHN은 정우진 대표를 재선임했다. 정 대표는 1975년생으로 2014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 취임, 2019년 사명을 NHN으로 변경한 이래 현재까지 회사의 수장직을 맡아왔다.

오는 29일에는 넷마블이 권영식·도기욱 각자 대표가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그간 넷마블은 방준혁 의장이 유일한 사내이사였다. 하지만 이번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집행임원제를 폐지하면서 앞서 두 대표의 책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30일 컴투스는 송재준 대표가 대표직

에서 물러난다. 이주환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송대표는 4월부터 글로벌 최고 투자 책임자로 이동하면서 글로벌 투자를 통한 해외 시장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31일 위메이드도 주주총회에서는 장현국 대표의 연임건을 논의한다. 장 대표는 선제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해 위믹스 성장을 이끈 주역이다. 장대표는 주총 이후 주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한편 올해 주총에서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이사보수 한도를 동결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넷마블은 이사보수 한도를 80억 원으로, 크래프톤은 100억, 카카오게임즈는 80억, 위메이드는 150억, 엔씨소프트는 200억, 컴투스는 80억 원으로 유지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CJ올리브네트웍스 ‘API 플렉스’ 출시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챗봇 활용

CJ올리브네트웍스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데이터, API, 솔루션 등을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API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API 플렉스(PLEX)’를 본격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API플렉스는 지난해 10월 베타 버전으로 오픈하며 CPaaS(클라우드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시장 공략에 나선 이후 30여개의 파트너십 확대, 서비스 모델 다각화 등 API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확장을 이루며 업계 주목을 받았다.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란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

격이다.

기업은 서비스 운영과 개발에 필요한 정보들을 API 형태로 호출 받아 간단히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AI 마켓’은 최근 폭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ChatGPT’와 이를 활용한 AI 챗봇 서비스 알리GPT를 포함하여 물류 최적화, 버추얼 휴먼, 오디오 및 비디오 소스 분리 솔루션, HR 데이터 기반 퇴직 예측 모델 솔루션, AI 문서 이해 솔루션 등 AI 관련 선택의 폭을 넓혔다.

공공데이터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정보, 아파트 전월세 정보, 전국 병원 및 약국 정보, 미세먼지 경보발령 등 고객에게 필요한 실생활 정보를 서비스 API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